

문명사적 대전환 몰고 오는 인터넷 혁명

기존의 질서와 상식을 파괴하는 전환의 시기...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 일어나

추창근 | 한국경제신문 정보통신부장

지금 지구촌은 거센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비트와 네트워크로 이뤄질 디지털 패러다임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전위대'는 인터넷이다. 이미 인류의 생활방식을 뿌리채 뒤흔들어놓은 인터넷은, 지난 1천년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를 초라하게 만들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21세기의 문을 막 열고 들어선 지금, 누구나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미래가 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시대'다. 그 중심에 인터넷이 있는 이 미래의 일부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많은 석학들은 인터넷이 창출해낸 디지털 패러다임이 인류 역사에서 지난 1천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마저 초라하게 만들 '혁명'을 앞으로 몇년 안에 이뤄낼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종말을 넘어 새로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창조할 것이라고 말한다.

비트와 네트워크로 패러다임 전환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비트(bit)와 네트워크'의 시대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를 원자(atom)라고 한다면 비트는 정보의 최소 인자(因子)다. 이 비트가 인터넷 네트워크 공간을 흐르며 세계의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상징하게 된다. 미국 MIT 미디어랩 연구소의 네그로폰테 교수는 《디지털이다》에서 이미 "아름에서 비트로 바뀌는 변화는 돌이킬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비트는 색깔도 형태도 무게도 없으나 빛의 속도로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 비트는 기존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한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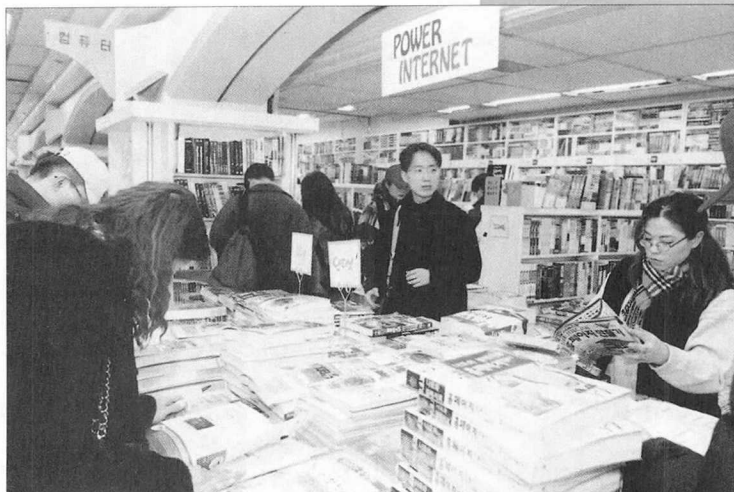
은 초월된다. 한뼘의 영토가 없어도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 사이버 국가에서 세계 각지의 디지털 국민들은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디지털이다》* 중).

MIT의 건축학 교수인 윌리엄 미첼은 《비트의 도시》에서 아예 "나의 세이름은 wjm@mit.edu..."라고 말한다. 그는 미래의 도시는 인터넷에 세워질 것이며 앞으로 모든 현실공간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비트의 도시에서 기존의 유형자산·공간이동·상품거래는 지적자산·정보처

리·전자거래로 바뀐다.

한마디로 '인터넷이 가져올 끝간데 모르는 변혁의 새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질서와 관습과 상식은 파괴된다. 이것이 디지털 패러다임의 본질이다.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며 시작된 인터넷은 이제 인류의 생활양식을 송두리채 바꾸고 있다. 인터넷 혁명을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문명사적 시각에서 읽어야 할 이유다.

간단한 예를 들자. 브리태니커는 2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백과사전의 대명사다. 그 백과사전은 32권이나 된다. 그러나 요즘은 도서관에서도 이 사전을 제대로 찾아 보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도 아니다. 달랑 CD롬 두장에 담겨 한 구석에 놓여 있다. 브리태니커는 지난 98년부터 인터넷에서 백과사전 검색서비스에 들어갔다. CD롬으로도 브리태니커의 명성을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32권의 값은 약 2백만원. CD롬은 그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인터넷 브리태니커는 1년 구독료



디지털 패러다임은 인류의 생활양식을 송두리채 바꾸고 있다. 인터넷 혁명을 문명사적 시각에서 '읽어야 할' 이유다. 사진은 대형서점 인터넷 관련코너.

가 겨우 6만원(미국)이다. 더욱이 인터넷에는 매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 책으로 만들어진 백과사전보다 훨씬 내용이 충실한 것이다. 결국 브리태니커는 2백년 넘게 지켜온 '출판왕국'의 명성을 스스로 던져버렸다. 인터넷의 위력이다.

인터넷의, 인터넷에 의한, 인터넷을 위한

세계의 많은 명사들도 인터넷 혁명을 말한다. '인터넷 전도사'로 유명한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의 존 챔버스 회장은 "인터넷이 기업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 우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터넷이 개인·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키워드라는 얘기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추앙받는 잭 웰치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GE)회장은 100년 넘게 변영의 길만 걸은 GE를 인터넷으로 변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1세기는 인터넷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것이며 GE는 과감히 기존 사업구도를 파괴하고 인터넷 중심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이그 배럿 인텔 회장은 "모든 국가들은 인터넷 접속기반을 서둘러 강화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경쟁구도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쯤 되면 아예 '인터넷의, 인터넷에 의한,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시대 대규모이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과 속도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는 국경을 초월해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은 국경파괴·문화파괴·전통파괴·계급파괴·성별파괴·계층파괴·유통파괴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가치가 뒤바뀌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전혀 새로운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기회의 땅'이 펼쳐진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인터넷 속의 사이버공간에 세울 수 있고 세계 시장의 무수한 잠재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팔 수 있다. 사무실도 공장도 창고도 없는 기업들이다. 이런 상황은 "무한대의 사람들에게 무한대의 정보를 제공하고 무한대의 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 길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인터넷은 세계 구석구석을 거미줄처럼 엮은 글로벌 네트워크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전과 기회의 땅인 셈이다. 더욱이 인터넷시대의 주도권 확보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은행거래·주식매매·예매·쇼핑 등 경제활동은 물론, 교육·놀이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사이버 공간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인터넷이 가져오는 변혁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단이나 공간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에 머물지 않고 기업관이나 직업관 등 정신적인 영역까지 변화시킨다.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가치관 등 인간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프랜시스 케언크로스가 지은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은 인터넷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거리의 소멸'이다. 기업활동은 시간대에 따라 아메리카대륙, 동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 3교대로 편성된다. 둘째, '위치의 불문'이다. 이제 기업은 본사가 어디에 있든 대부분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 위치가 핵심요소가 되지 못한다. 기업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기술과 생산성을 거래할 수 있다면 지구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불문'이다. 앞으로 많은 소기업들이 과거 대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개인도 자신의 생각을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넷째, '맞춤 콘텐츠의 발전'이다.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로 펼쳐지는 '기회의 땅'

다섯째, '브랜드 파워(선점효과) 중요성의 증대'다. 어떤 상품이나 인물, 또는 행사 같은 관심사들은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상품개발의 잠재시장은 더 크게 확대된다. 여섯째, '마찰없는 시장'이다. 기업과 고객이 정확한 가격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이윤을 제거하면서 경쟁을 강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일곱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소기업은 세계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대기업은 고품질의 지역별 서비스를 더욱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여덟째, '작은 것은 더 작아지고 큰 것은 더욱 크게'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은 감소하고 더 많은 소기업이 출현한다. 반면 통신 브랜드의 영향력과 네트워크의 위력은 더 강해진다. 아홉째, '집과 사무실은 바뀐다'. 많은 사람들은 작업을 위해 소규모 사무실이나 집에서 일하게 되며 가정생활과 회사생활의 구분이 모호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관념의 증식'이다. 새로운 사고와 정보가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 반대편의 가장 먼 곳까지 전달된다.

또 있다. '도시의 새로운 탄생'이다. 개인이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고 집에서 작업하거나 여행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도시가 고용의 중심지에서 오락과 문화의 중심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문화공동체'도 가속화된다. 인터넷 혁명은 소수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변방의 문화는 강화되고 존재가치는 강렬해진다. 영어의 발흥과 대비되는 문화다.

결국 인터넷은 '권력의 재편성'을 불러올 것이다.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을 더 직접적으로 교환하고 시위할 것이다. 국가도 사이버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터넷 혁명의 충격적인 것이다.

이제 경제생활을 비롯해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모든 것은 웹에 존재하는' 세계다.●